

# 문헌정보학 관련학회지의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장우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wk1961@jnu.ac.kr

Woo-Kwon Chang, Dept. of L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관련학회지의 성격규명을 위한 것이다.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관리학회지,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의 각 학회지의 논문 투고규정을 조사하여 학문영역과 학회지의 특성을 비교한다.

### 1. 서론

인류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들이 어떤 현상과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및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양의 학술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28,100종의 학술저널 및 2,500,000편의 논문이 출판되었고 학술저널은 해마다 2.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Ware and Mabe, 2015, 27-29).

도서관과 학술정보센터 그리고 관련 연구소에 이론과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는 문헌정보학과와 문헌정보학 관련학회의 역할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시금석은 1957년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당에서부터이다. 그 이후 현재 다음 <표 1>과 같이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1>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황<sup>1)</sup>

구분	학년	자격	수	
문헌정보학	4년제	학사(정사서)	35	
	2년제	전문학사(준사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사(정사서)	3	
	사서교육원	1·2급정사서 준사서	3	
도서관	국립도서관		3	
	공공도서관		930	
	대학도서관		458	
	학교도서관		11,405	
	기타도서관		장애인	42
			교도소	50
		전문	26	
작은도서관			5,234	

이처럼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같은 발전의 저변에는 학술지가 있었다. 학술지에는 학교와 현장에서 관련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를 게재한 것이다. 학술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문헌정보학회지를 비롯한 여러 학회지가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IT의 발전으로 인한 출판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인식변화로 기존의 학회지의 발행형태가 전자저널로 탈바꿈되고 있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4.12.31. 현재) (<https://www.libsta.go.kr/>)

으며, 이로 인한 학회지의 성격도 분명치 않아 문헌정보학 관련 모든 학회지가 재 영역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을 통해 관련 학회지의 성격과 투고 논문 범주를 조사하여 각 학회지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 범주에 따라 훌륭한 연구 성과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관련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문헌정보학

우선 우리의 자화상을 살펴보자. 한국정보관리학회(1995)에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 <표 2>와 같이 4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짐을 하였다.

<표 2> 한국문헌정보학의 문제제기와 성찰

	문제	성찰
①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영감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탐색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	•외국이론의 원론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문헌정보학 이론을 개발한다는 관점으로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여야 함
②	•이론정립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임기응변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식의 축적은 어렵다. •한국에서 연구된 이론을 건설적으로 비평하고 인용함으로써 점차적인 지식축적을 이룰 수가 있음
③	•외국의 문헌정보이론을 여과 과정없이 우리 실정에 적용하는 서 야기되는 문제	•이론의 설명영역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일반화가 가능한가를 판단
④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이 세련되지 못함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	•분석방법의 획일화나 일방적인 수량화는 이론 자체의 신뢰도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됨

20년이 지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4가지 지적사항 중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은 한 번에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어원적, 이론적, 다양한 학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

<표 3> 문헌정보학의 정의

학자·학회	정의
정필모 (1983)	기록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축적, 검색, 전달, 이용을 위한 과학적인 통할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
藤川正信 (1988)	도서관정보학은 인간의 지성의(知情意) 활동에 의한 기호화 행동과, 그 소산으로서의 기록, 아울러 그 이용에 관해서 과학기술의 입장에 바탕을 둔 체계적 연구를 행하는 분야
이재철 (1990)	정보를 담은 문헌 또는 문헌이라는 말과 정보란 말이 합성해서 생산된 제3의 새로운 개념을 지닌 말로 종래의 문헌이 지녔던 개념을 넓혀 도서와 비도서에 수록된 정보는 물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종전의 도서관학보다 연구대상의 범위가 넓은 학문
정동열 (1992)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최근에 발달된 정보학 분야가 결합된 학문으로,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관찰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편 타당한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형성된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분야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구본영 (1996)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은 종래의 도서관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성된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 문헌정보학은 종합적인 학제간의 학문이며 전문적인 학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2010)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
최신문헌정보학의 이해 (2013)	문헌정보학의 성립은 종래의 Library science 나 Library ad Information science란 통칭을 어떻게 변형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록된 모든 문헌의 형태로서 정보의 가치가 디는 것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료를 더 빨리 검색, 활용하여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는 학문

## 2.2 학회지

학술지 또는 학술잡지(scholarly journal, scientific journal)란 논문 형태로 정리된 연구 성과를 여러 편 게재하여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연속간행물이다. 여기에는 완전한 논문(full paper)을 게재한다. 완전한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연구영역의 연구자 커뮤니티가 규정하는 논문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첫째,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고찰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인 개념, 용어, 기호를 사용하여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전체구성, 인용방법, 서지사항 기술방법, 도표표시방법 등이 게재지의 집필규정(편집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논문의 구성요소로서 논문명, 저자명, 본문, 참고문헌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그림, 표, 접수일자, 초록, 키워드 리스트, 각주, 보(補), 감사의 글(謝事) 등이 부가된다(海野敏, 影浦峽, 戸田愼一, 1999). 또한 학술지는 협의적 의미로서 심사제도(투고논문의 심사)를 가진 학회지이다(馬場俊明, 2012).

학회지는 학회가 간행하는 기관지로 간행빈도와 논문 수는 학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투고된 논문은 심사를 거친다. 게재여부는 각 학회지마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 2.3 선행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1995)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의 이론체계 및 연구영역과 교육방향, 교육영역 및 교과과정,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조찬식(1999)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광동철(2011)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적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정립하고, 전문직 사서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확립하며, 사서양성기관의 정비 및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미희(2014)는 문헌정보학의 '문헌정보'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에서 문헌정보학에서 의미하는 문헌정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헌과 정보의 화학적 결합보다는 범위의 확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특수한 개인적 경험에 의해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는 다의적 용어라는 점과 이에 대한 학문적 규명작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관련 학회지의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을 살펴보고 이 규정이 학회지의 성격에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와 논문투고 현황 및 분석

### 3.1 학회지 현황

이 글에서 조사대상인 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도서관학, 1970-현재 제50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도서관학논집, 1974-현재 제47권 제2호), 정보관리학회지(1984-현재 제33권 제2호), 한국비블리아학회지(1990-현재 제27권 제2호),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현재 16권, 제2호)이다.

### 3.2 논문투고 규정

각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학회지명	논문투고규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3.8.31. 개정) 제3장 투고 3. 투고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4. 투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학술 논문이어야 한다.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칙. 제3조(목적) 본회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유대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투고규정 (2014년 8월 1일 11차 개정) 3. 이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제는 <u>도서관·정보학 및 관련분야로 한정</u> 한다.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2년 5월 25일 개정) 제5장 투고 규정 제14조 투고 논문은 <u>정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u> 의 미발표 학술 논문으로 정보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논문투고 규정 (2015년 5월 7차 개정) 제2조 논문투고 2. 투고논문은 <u>문헌정보학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u> 의 미발표 학술 논문으로 문헌정보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2014년 2월 14일 개정) 제3조 투고논문 범위 ①투고논문은 <u>기록관리학분야 및 그 응용분야</u> 의 독창적인 미간행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기타 관련 분야로 투고할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논문투고 규정에 학문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문헌정보학회 회칙의 목적에서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으로 되어 있어서 광의적 성격을 볼 수

있다. 반면에 4개의 학회지에서는 나름대로 투고논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협의적인 아닌 광의적으로 학문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위의 투고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84년부터 2015년까지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전수조사 하여 나타난 1,157편의 초록을 읽고 난 후 초록의 내용을 주제로 분류하였다.<표 5>.

<표 5> 초록의 주제와 종류

주제	시대(논문)			계(비율)
	1984-1998	1999-2006	2007-2015	
계량정보학	12(5.2)	20(5.0)	79(15.0)	111(9.6)
디지털도서관	7(3.1)	13(3.2)	15(2.9)	35(3.0)
문헌정보학일반	15(6.6)	14(3.5)	10(1.9)	39(3.4)
정보검색	47(20.5)	69(17.1)	59(11.2)	175(15.1)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26(11.4)	73(18.1)	125(23.8)	224(19.4)
정보공학	59(25.8)	76(18.9)	55(10.5)	190(16.4)
정보교육	6(2.6)	13(3.2)	16(3.4)	35(3.0)
정보서비스	30(13.1)	74(18.4)	96(18.3)	200(17.3)
기록관리/보존	0(0.0)	13(3.2)	20(3.8)	33(2.9)
정보조직	18(7.9)	28(6.9)	33(6.3)	79(6.8)
정보자료/미디어	3(1.3)	7(1.7)	5(1.0)	15(1.3)
기타문헌정보학	6(2.6)	3(0.7)	12(2.3)	21(1.8)
합계	229	403	525	1,157(100)
비율(%)	19.8	34.8	45.4	100

여기에서 나타난 초록의 주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분야분류표의 문헌정보학 소주제를 준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제는 계량정보학, 디지털도서관, 문헌정보학일반, 정보검색,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공학, 정보교육, 정보서비스, 기록관리/보존, 정보조직, 정보자료/미디어, 서지학, 기타 문헌정보학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서지학은 게재된 적이 없어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현재까지 도서관/정보센터경영이 19.4%(224), 정보서비스가 17.3%(200), 정보공학 16.4%(190), 정보검색 15.1%(175) 순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계량정보 9.6%(111), 정보조직 6.8%(79), 정보정책 5.4%(62), 문헌정보학일반 3.4%(39), 디지털도서관과 정보교육이 각각 3.0%(35), 기록관리/보존 2.9%(33), 기타 문헌정보학 1.8%(21), 정보자료/미디어 1.3%(15)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984-1998년 시기는 정보공학>정보검색>정보서비스>도서관/정보센터경영>정보조직>문헌정보학일반>계량정보학 등이 순이었으나, 1999-2006년 시기는 정보공학>정보서비스>도서관/정보센터경영>정보검색>정보조직>계량정보학 순으로 나타났다. 2007-2015년시기는 도서관/정보센터경영>정보서비스>정보공학>정보검색>계량정보학>정보조직 순이었다. 여기에서 변함없이 상위권은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공학, 정보서비스, 정보검색이었으며 그 다음은 계량정보학, 정보조직이었다. 특히 계량정보학은 초기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서비스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보검색, 정보공학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3.3 학회지의 성격과 논문투고

위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회지의 논문 투고규정에서는 각 학회와 학회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방향이 광의적으로 규정되었으며 협의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회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실제적인 문헌정보학의 성격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각 학회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 참고문헌

- 강미희 (2014). 문헌정보학의 ‘문헌정보’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297-319.
- 곽동철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69-83.
- 리재철 (1990). 文獻情報學의 學名에 대한 考察. 정보관리학회지, 7(2), 3-34.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
- 이용남 외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 정동열 (1992).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서울: 구미무역(주) 출판부.
- 정필모 (1983). 문헌정보학원론. 개정판. 서울: 구미무역(주) 출판부.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최신문헌정보학의 이해. 한국도서관협회.
- 藤川正信 (1988). 圖書館情報學總說. 圖書館情報學 編輯委員會編. 東京: 丸善株式會社.
- 馬場俊明 (2012). 圖書館情報資源概論. 日本圖書館協會.
- 海野敏, 影浦峽, 戶田愼一 (1999). 學術情報と圖書館. 雄山閣出版.
- 海野敏, 影浦峽, 戶田愼一 (2001). 학술정보론. 오동근, 배영환, 조도희 공역. 태일사.
- Ware, M. and Mabe, M. (2015). The STM Report: an Overview of Scientific and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Hague,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